〈미니 인터뷰〉

4년만에 서울전을 위해 온

金次燮씨

뉴욕 브로드웨이 6번가 화이트·스트리트에 자리잡고 있는 金次燮씨의 생활 공간이자 아틀리에는 한 60평은 충분히 넘는 넓이다。한쪽 구석엔 침실과 부엌이 자리잡고 그 옆엔 응접실 겸 식당이、그리고 칸막이도 없이 곧바로 넓직한 마루바닥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。그 한쪽 코너에는 동판 기계와 여러가지 재료들이 산적돼 있는게 한 눈에 들어온다。아직도 미완인 채의 약 二천호쯤 되는 油畵가 공방 한가운데 버티고 있다。

『모 은행에서 주문한건대、아직은 한달쯤 더 걸릴 것 같네요。』

완성되면 하나의 거대한 벽화가 될 것 같다。역시 테마는 끝없이 전개되는 자갈밭이다。자갈밭을 테마로 한 작품은 渡美하기 전부터 판화로 다루어오던 것。벽면에 걸려 있는 대부분의 판화와 유화 에스키스도 자갈밭 시리즈가 단연 많다。

『미국 온지 약 4년쯤 돼요。그동안 어려운 고비를 넘겼지요。이젠 좀 안정이 되고 자신이 해야될 일、그리고 이 사회에서 어떻게 자신을 가누어갈 것인가가 어느정도 터득된 것 같아요。얼마전 만난 잘 아는 미술관장도「아직 살아있었군」하고 반가워하더군요。그것은 쉽게 타락하지 않고 자신을 가누고 있다는데 대한 반가움인 것 같애요。』



프랫트 판화연구실을 나오자 많은 딜러들의 유혹이 있었지만、자신을 값싸게 넘길 수 없어 거절하고 지금도 꾸준히 기다리는 태세를 지니고 있다。국내에선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、그동안 그의 활동과 그 성과는 대단하다。

75년의 오두본 예술가전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대비드선大學, 국내판화 및 드로잉전에서의 수상, 브룩크린 뮤지움에서의 미국판화 30년전에 출품, 뉴욕 현대미술관수장, 미 국회도서관 주최 25회판화 및 드로잉전 초대, 그리고 어소시에이트·아메리칸·아티스·갤러리에서 초대 개인전 등이 75년에서 현재까지의 그의 활동을 말해주고 있다。 그의 작품이 수장된 것만 해도, 뉴욕현대미술관, 브룩크린미술관, 대비드선大學, 워싱톤 국회도서관 등이다。

그가 다루는 소재는 별반 달라진 것 같지 않다。 그러나 그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추구해온 것 같다。 특히 시간과 공간에 대한 구조적인 관심은 그의 작품 속에 하나의 깊이로서 조용히 등장되고 있다。 그의 이야기 가운데도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 대한 편린이 수없이 깔린다。 주로 읽고 있는 책도 이 범주의 것이 단연 많다。

『그동안 생각해오고 나름대로 끄적거려본 것을 좀 들고가서 국내에 보일 작정이예요。 몇 사람이든 공감자가 있다면 다행이지요。』

9月초 空間화랑에서의 개인전을 위해 8月말 귀국할 예정이다。 4년 만의 귀국이다。

『아직은 이렇다할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아요。 잠정기인 것 같애요。

최근엔 과거의 작품에 대한 재해석 내지 재평가 작업이 활발한 것 같애요。 과거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었던 작품들에 대한 비판도 곁들여지고요。』

뉴욕 화단에 대한 이야기다。 여행자가 보아도 굉장히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다。 어떤 의미로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것을 위한 정비기에 들어왔다고 할까。 역시 새로운 것이란 전연 돌연변이가 아니라 과거의 바탕에 맥락을 두고 일어나는 것이니까 과거의 재해석 내지 비판도 그와같은 탐색기의 한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 같다。

옆에서 보아도 그의 뉴욕 생활은 이제 몸에 밴 것 같다。 그 곳의 공기가 몸에 밴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자신이 섰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을 것 같다。

『한국의 작가들, 특히 미국으로 건너오는 젊은 작가들이 너무 안이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애요。 여기 젊은 작가들이나 학생들 밤잠 자지않고 공부해요。 겉으로 보기에는 헐렁헐렁한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굉장이 많이 노력해요。』 〈O記〉